

새 희망을  
심겠습니다

스카이데일리



# 장동혁, 극우 결집 '마이웨이' 굳혔다

내란 사과 거부 정면 돌파 선택  
한동훈 겨냥한 공세 강화 예고  
지방선거 파격 공천 쇄신 천명

당 노선 변화 꾸준히 지적해 온  
오세훈·박준형 시장에 견제구  
8일 예정 당 쇄신안 관심 쏠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 비주류의 '123 비상계엄' 사과 요구를 거부하며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사실상 극우 강경파 결집을 통한 6·3 지방선거 돌파 의지를 확고히 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당내 강력한 당권 경쟁자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당 노선을 두고 대립각을 세워 온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을 겨냥 "파격 공천"을 예고하며 견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당 지도부에 대한 도전 세력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반면, 한 전 대표는 당내 일각에서 오 시장을 공격하는 것을 두고 '해당 행위'로 규정하며 공세를 취했다. 또한 지방선거 승리의 전제 조건인 외연확장을 위해 당 지도부의 기조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강도 높게 내겠다는 태세다.

이에 따라 '선 자강론'을 내세운 장 대표의 친정체제 굳히기가 비주류의 '통합론'과 부딪치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주류와 비주류 간 권력 투쟁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 대표는 2일 오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한 것에 대해 "계엄에 대한 제 입장을 반복해서 묻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경고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새로운 인물들로 파격적인 공천 혁신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장 대표가 '당심 70%' 경선률을 들이밀 경우, 오 시장의 예선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장 대표는 또 "당내 통합에 걸림돌이 있다면 그 걸림돌이 먼저 제거돼야 당 대표가 당내 통합을 이루는 공간이 생길 것"이라며 당원계시안 논란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한 전 대표를 겨냥했다.

장 대표가 '파격 공천'을 명분으로 지방선거 공천을 통한 대대적인 물갈이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의 지원을 바탕으로 '친정 체제'를 공고히 함으로써 지방선거 이후도 대비하겠다는 판단도

포함돼 있다.

20%대에 갇혀 있는 당 지지율과 달리 장 대표가 보수진영 내 차기 대권주자로서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점도 장 대표가 정면돌파를 통한 '홀로서기'에 나서게 된 배경으로 분석된다.

장 대표가 민주당과의 대척점에서 서서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대어 투쟁을 진두 지휘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장 대표는 4일 강선우·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공천 현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통령을 지지했다. 그는 이날 SNS에서 "강선우가 자신있게 단수 공천을 할 수 있었던 뒷배가 있었을 것이다. 그 뒷배가 누군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김병기보다는 더 앞선의 누군가일 것"이라며 "당시 당 대표는 이제 명 대통령이냐. 특검이 필요한 이유"라고 적었다.

하지만 비주류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일부 우리당 중앙당 당직자들이 우리 당 서울시장이자 유력한 출마 예정자가 당의 쇄신, 계엄과의 단절을 촉구했다는 이유로 SNS와 유튜브에서 마치 민주당의 마타도어를 방불케 하는 협박과 막말로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립을 지켜야 할 당직자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자해적 언행을 서슴치 않는 건 명백한 해당 행위"라며 반격을 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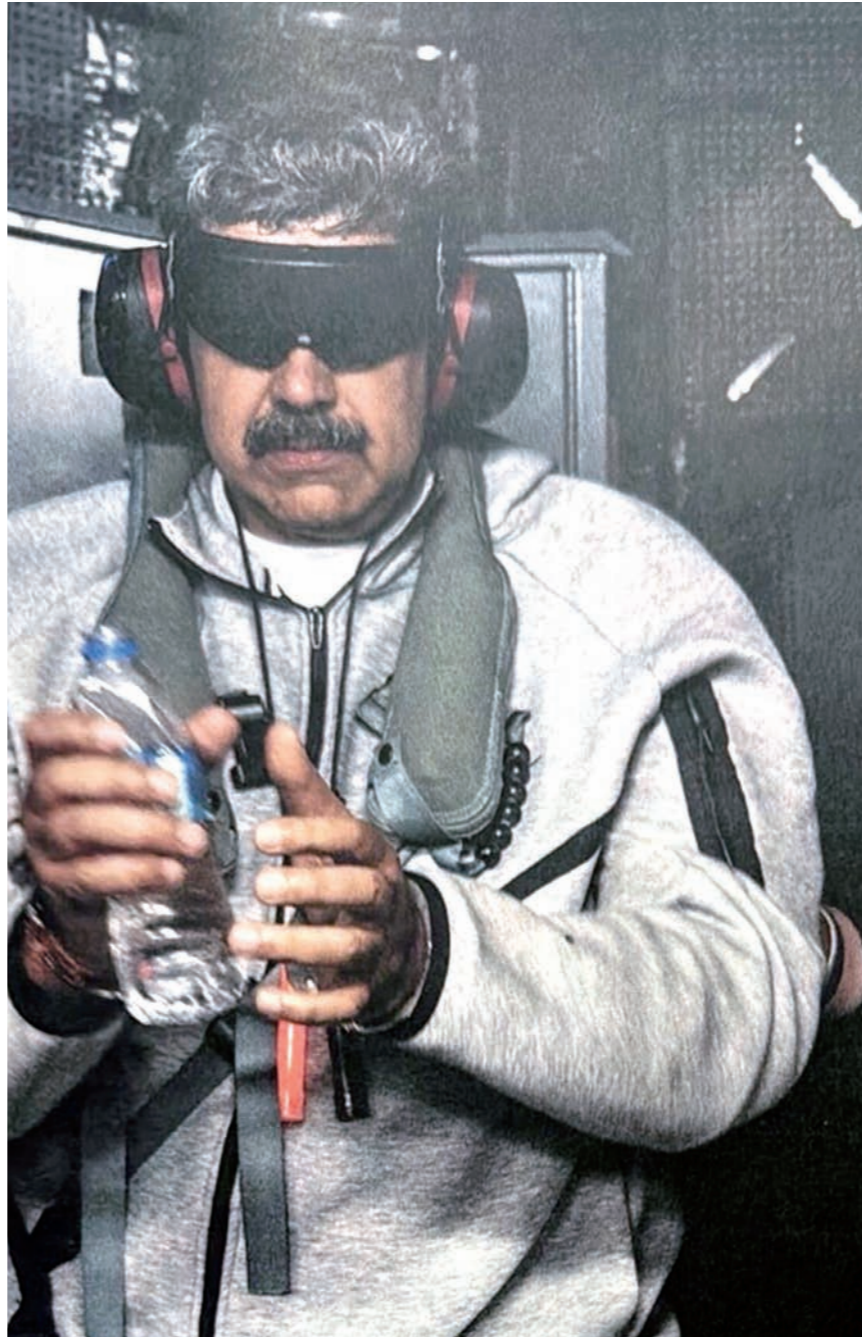
'계엄 옹호' 세력과의 단절을 요구한 오 시장 역시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들과 접전 양상이 지속될 경우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과 당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의 '정면돌파' 의지의 첫 관문은 8일 예정된 당 쇄신안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및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가 포함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통합'을 이뤄낼 쇄신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장 대표 노선 및 독자 체제에 대한 비주류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장동혁 대표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필러가는 마두로... 13년 집권 마침표 노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미군의 전격적인 군사작전으로 체포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근황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공개했다. 미국은 이날 새벽 베네수엘라를 기습 공격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생포하는 데 성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 명령을 내린 지 불과 3시간 만에 2013년부터 13년간 이어진 마두로 정권이 무너졌다. 연합뉴스

# 美, 마두로 뉴욕 압송 중·러 "무력 침략" 반발

3시간 만에 생포 작전 종료  
베네수엘라 좌파 정권 축출  
유엔도 "국제법 위반" 규탄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를 놓고 중국 러시아 등 베네수엘라 우호국들이 일제히 비판했다. 유엔도 국제법과 유엔헌장 위반을 우려하며 5일(현지 시간) 긴급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미국은 3일 항공 작전으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생포하며 정권 축출에 성공했다. 마두로는 2020년 '마약 테러리스트' 등의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됐고 5000만 달러(약 723억 원)의 현상금이 걸린 형사재판 피고인이었다. 미국 정부는 이에 근거해 베네수엘라를 압박해 왔다.

〈관련기사 8면〉

4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에 대해 "현재 국가원수를 이런 식으로 생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무모한 행위"라고 말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3일 성명에서 "오늘 아침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무력 침략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는 깊은 우려와 비난을 받을 만하다"고 밝혔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미국의 행동이 국제법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라며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아르헨티나와 이스라엘, 이탈리아

아 등 친트럼프 기조의 국가들은 환영을 표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마약 밀거래를 부추기고 조장하는 국가 기관과 같이 자국 안보에 대한 하이브리드 공격에 맞선 방어적 개입은 정당하다고 여긴다"라며 옹호했다.

미국 내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연방 하원의 공화당 1인자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성명에서 "오늘 베네수엘라에서 펼친 군사 행동은 미국의 생명을 보호할 결정적이며 정당한 작전이었다"면서 미국인의 생명을 우선한다며 지지를 표했다.

민주당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 사용을 의회에 사전통보, 허가 받지 않고 군을 투입하고 구체적인 계획없이 베네수엘라를 통치하겠다고 한다며 반발했다.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축출 배경은 세계 석유매장량 1위인 베네수엘라에서 석유 이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현재 베네수엘라를 군부를 중심으로 '국가통합방어사령부'가 출범했고 부통령인 텔시 로드리게스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 구치소에 수감된 마두로는 마약 밀매와 돈세탁 혐의로 다음 주 맨해튼 연방법원 법정에서 설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정부는 마두로 대통령과 측근들이 콜롬비아의 옛 반군조직 FARC 및 마약 카르텔과 연계해 수천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반입했다고 주장했다.

김선민 기자 smkim@skyedaily.com

# AI 열풍에 부품 불타... PC값 경총

램 가격 두 배 ↑ GPU도 급등  
"지금 제일 싸" 주문 서둘러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기업용 반도체 공급 부족의 영향으로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이어 램 가격까지 상승하고 있다. AI 기업 뿐만 아니라 고성능 컴퓨터를 구매하려는 개인 소비자 또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PC부품 가격 비교 사이트 다나와와 네이버 쇼핑 등에서 램 가격을 비교한 결과 최근 한 달 GPU 가격 역시 엔비디아 RTX 5090 기준 2025년 초 약 2000달러에서 현재는 2500달러에서 3500달러에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거래가 기준으로는 450만 원을 넘어선 상태다.

개인용 컴퓨터를 조립식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컴퓨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이다.

컴퓨터 부품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AI 열풍에 따른 기업용 반도체 수요의 증가가 꼽힌다. 현재 기업이 요구하는 AI용 반도체를 공급하기에 생산 라인이 모자라 고 가격 또한 높아 반도체 기업들이 개인용 부품에 할당했던 생산 라인을 기업용으로 전환하며 개인용 부품 공급이 감소했다.

개인용 컴퓨터 부품은 비트코인 붐 당시 상승했다가 가상화폐 채굴 수요가 안정화되면서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AI라는 또 다른 상승 요소를 만나면서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에 사는 김민우(31) 씨는 "가격이 내리면 살려고 오래 기다렸는데 오히려 가격이 내릴 일이 없을 것 같다"며 "차라리 지금 사는 게 가장 쌀 것 같아서 어제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컴퓨터 부품 가격 상승은 향후 몇 년 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렌드포스 보고서에 따르면 AI가 전 세계 D램 생산 능력의 20%를 빨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업계에서는 AI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 부자의 길을 함께 갑니다 대한민국 첫 '부의 지도' 서비스

부자의 성(城)

서초 강남 용산 SKY!!!

스카이데일리가 새로운 부의 길을

놓습니다

누구나 그 길을 갑니다

존경 받는 부자의 모습입니다



SkypeDaily